

## "공익법센터 어필" 최종사업결과보고서

2026. 01. 16

공익법센터 어필은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연대 활동, 인식제고 캠페인, 국제인권 메커니즘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사업 개요

- 주관 / 후원 : 공익법센터 어필 /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 목표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난민처우 개선, 난민인식 개선
- 사업 기간 : 2023년 ~ 2025년 (3년)
- 사업 내용 : 난민신청 및 소송 등 법률 조력, 난민 관련 법제 개정활동, 사무실 구매

### ■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성과 및 총평 (별첨자료1)

#### ■ 주요 사업별 진행상황 (별첨자료2)

- 일반난민지위인정, 공항난민입국, 구금된 난민구금해제 등 분야의 성공적인 난민구조
- 난민제도, 구금제도 개선(기획소송 성과 및 제도개선 활동)
- 사무공간 구매로 장기활동 안정적 기반 마련  
(신규 변호사 2인, 회계담당 운영팀장 1인 채용 및 Legal Service Team 신설로 인적구조 완비)

## 별첨자료-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성과 및 총평

### ■ 조직의 미래비전에 따른 성과

어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아래의 성과 정의는 미래비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성공'으로 정의 될 수 있도록 성취되었습니다.

#### 1. 적대에서 환대로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 (성과정의1)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 확대 : 난민인정절차(RSD) 조력을 하는 변호사 수 증가, 전문적인 국가정황정보 리서처 및 통역인 네트워크의 확보, 난민 법률 조력 건수 증가
- (성과정의2) 난민 당사자들의 권리 인식 증진 : 난민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자료에 대한 통번역 건수 증가, 출입국 및 법원 출석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 지원 건수 증가
- (성과정의3) 난민인권단체의 역량강화 : \_난민인권네트워크 내의 단체에게 국가정황정보 및 사례관리 시스템, 통번역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 공유,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단체와 협력 사업 진행

#### 2. 난민들이 마땅히 설 자리를 찾도록 - 난민 처우 개선

- (성과정의4) 위기 난민 지원 건수 증가 :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들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위기 상황에 있는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 건수 증가

#### 3. 난민들이 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 난민 인식 개선

- (성과정의5)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를 통해 전달,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5개 성과정의 핵심 숫자 대시보드

임팩트그라운드 사업 성과 (2023 - 2025)

공익법센터 어필  
APIL Impact Report



**(성과정의1)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조력은 확대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전시 응급실 구조'와 같은 상황을 '안정적 여건 마련'을 통해 '인적 구성', '조직 구성'을 충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난민들을 상담,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중 2명의 신규 변호사가 새로 채용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700건의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는 별첨 자료2에 의한 놀라운 지원 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정의2) 난민 당사자들의 권리 인식도 증진되었습니다** '안정적 여건 마련'을 통해 충원된 2명의 어필 변호사와 1명의 운영팀장을 통한 구성으로 사업기간 이전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던 통·번역비를 기준을 마련하여 3년동안 전문적인 통역사를 통한 통·번역을 161회 수행하였습니다. 통역비의 원활한 집행이 준 힘이며, 이로 인해 난민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 안에서 더 분명한 권리 인식을 통해 절차적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정의3) 한국 시민사회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난민인권단체의 역량강화 성과도 달성되었습니다.** 국가정황정보 및 사례관리 시스템은 사업기간 내에 런칭까지 되진 못하였으나, 상당부분 기획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사례관리 시스템은 2026. 1.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난민법, 처우, 출입국향 워킹그룹의 핵심멤버로 어필 구성원들이 활동하여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과정의4) 위기 난민 지원건수도 증대되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공항에 갇혀 있거나,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등으로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2023년 51건, 2024년 92건, 2025년 69건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정의5)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매년 25건 정도의 강의를 통해, 3년 간 약1800명의 시민들에게 난민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가장 넓은 저변을 통해 난민의 이야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사업기간동안 746명 증가, 조회수는 17만회, 시청시간은 6천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저명한 영국의 국제난민법 교과서를 한국 최초로 번역하여 출간하여 배포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난민법률지원매뉴얼의 개정판 저술 작업에 핵심 멤버로 어필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어필 외의 변호사 및 법률조력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5. 11. 런칭한 ASKOVISIA 앱을 통해 low-level의 상담 수요를 언어 장벽을 넘어 줄일 수 있도록 무료로 런칭하여 난민 및 이주민 당사자 본인, 그리고 이들을 상담하는 단체들의 상담 수요도 줄일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역량강화를 이루었습니다.

## ■ 비전계획에 따른 주요 Outcomes 및 Outputs

미래비전계획서에 기술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난민 처우 개선', '난민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특히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은 종전에 통계조차 잡히지 않던 상담건수가 매년 700여건으로 증대되고, 매년 5-7건에 이르던 어필의 난민소송 승소 건수도 무려 2.5-3배 정도 증대된 것을 보면 조력 비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민 처우 개선**은 '외국인 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한 새로운 출입국관리법 법제도가 들어오게 되어 구금기간 상한이 생기게 되었고, 아동구금 금지 법안이 사업기간 내에 발의되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헌법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재난 상황에서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범위 및 한국사회의 '성원'으로서의 범주에 난민인정자 자격을 가진 난민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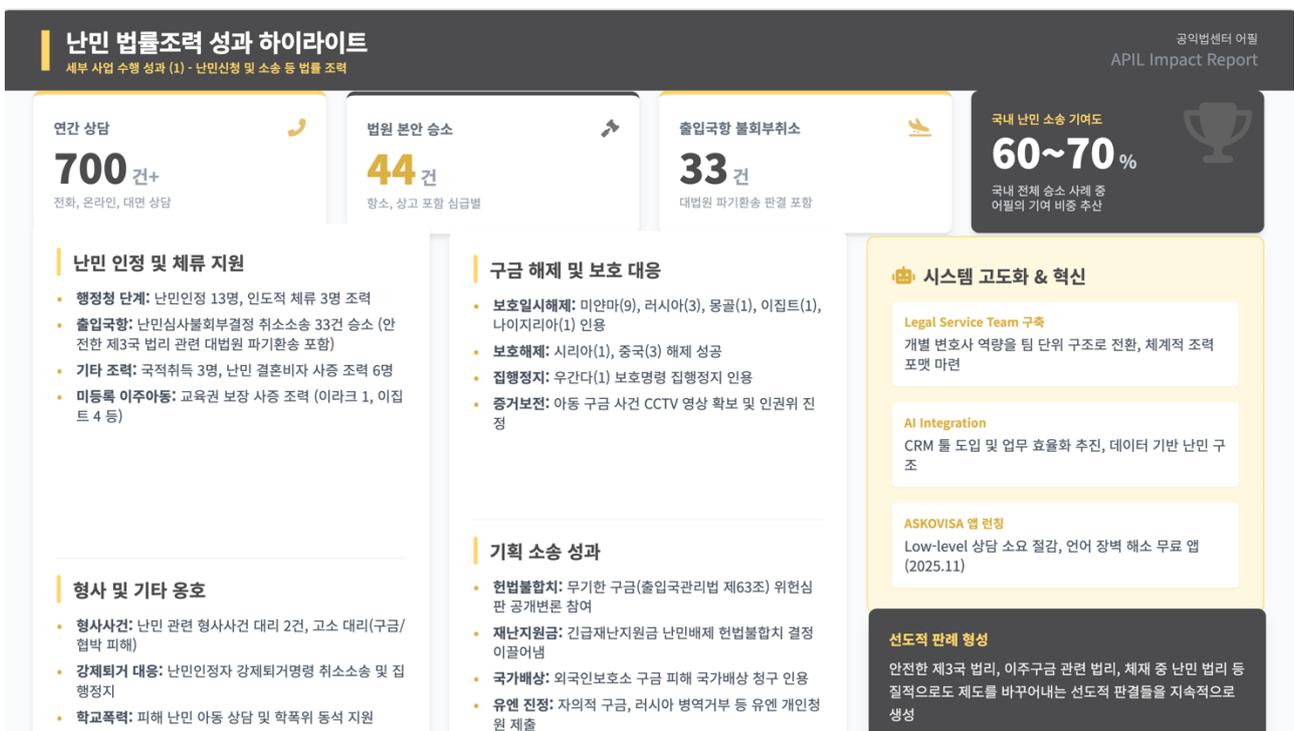
**난민 인식 개선**은 앞서 본 것처럼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확대, 지속적인 언론 응대 등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난민법률조력은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상향되었고, 난민 처우 및 인식 개선 분야는 한국사회 속 난민들이 정당한 성원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목표이므로, 완벽하게 달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더 개선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이해하며 앞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 ■ 총 사업기간(2023-2025) 내 사업 세부 수행 성과

이와 같은 미래비전계획에 포함되었던 어필의 사업들의 세부 수행 성과를 각도를 더 선명하게 조정하여 '난민신청 및 소송 등 법률 조력 : 지속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법률을 통한 난민구조활동', '난민 관련 법제 개정활동 : 구조 변화를 통한 임팩트 창출 활동', '사무실 이전 - 안전한 상담과 장기적인 안정적 활동을 가능케 한 사무실 이전'으로 다시 정리해봅니다.

### 1. 난민신청 및 소송 등 법률 조력 : 지속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법률을 통한 난민구조활동



1) 매년 약 700여건의 상담(전화, 온라인, 대면)

2) 법원단계 난민본안 44건 승소 대리 (항소, 상고 사건 포함 심급별 통계)

3) 행정청 단계 13명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 지위 3명 조력

4) 출입국향 난민심사불회부결정 33건 승소(특히, 2015년 이후 상급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안전한 제3국' 법리를 포함한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역사상 최초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법리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도 수행하여 받아냄)

## 5) 기타 대리 등

- 보호일시해제 신청 및 인용(미얀마 9인, 러시아 3인, 몽골 1인, 이집트 1인, 나이지리아 1인), 보호해제(시리아 1인, 중국 3인), 보호명령집행정지(우간다 1인), 몽골, 캄보디아 아동 구금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 영상 확보 및 공개, 구금 피해 인권위 진정 단계 조력

## 6) 난민 형사사건

- 형사 고소 대리(구금 피해 시리아 난민, 대사관 협박 이집트 난민), 난민 형사사건 대리 2건, 난민협약 제31조 관련 난민 형사사건 대리

## 7) 난민제도 기획소송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등 무기한 구금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공개변론 변호인단 참여(헌법불합치결정),
- 긴급재난지원금 난민배제(헌법불합치 결정)
-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 국가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인용
- 에티오피아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변경불허 취소소송, 미얀마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명령 취소소송 각 승소
- 국적취득 3명

## 8) 난민 결혼비자 사증 조력 6명

## 9) 기타 옹호활동

- 강제퇴거명령 받은 난민인정자를 위한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국내 유럽연합 외교관 정례 모임 참여 후 러시아 난민 관련 발표 : 2024. 11.
- 유엔 진정
  - ◆ 공항 구금 후 출입국지원센터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 유엔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개인 청원 제출,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유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 고문, 인종차별 및 러시아 특별보고관에 개인 청원 제출
-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증 조력 - 이라크 1, 이집트 4 등

## 10) 기타

- ◆ 난민 국가배상청구 소송,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법률조력(자녀 초청, 영주권 등), 학교폭력 피해 난민 아동 상담 및 학교폭력위원회 동석, 난민인정 및 귀화자 국적 보유 관련 상담, 난민인정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조력

11) 평가

- 브라이언 임팩트 사업 기간 내 어필의 난민구조 성과는 국내 난민소송 승소 사례의 60-70% 정도를 차지하며, 숫자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제도를 바꾸어내는 선도적 판결들을 계속 만들어왔음(안전한 제3국 법리, 이주구금 관련 법리, 체재 중 난민 법리 등)
- 난민 조력 변호사의 인적 기반 확충(임대료로 나갔던 비용을 활용, 신규 실무수습 변호사 2명 채용) 및 Legal Service Team을 구축, 체계적인 난민구조 활동에 대한 포맷이 마련됨
- 지속적으로 AI integration을 통한 업무 고도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더 많은 난민 구조가 가능하도록 조력 절차를 개선 중임(CRM 툴 확보, low level 상담용 앱 출시 등)

2. 핵심목표 - 난민 관련 법제 개정활동 : 구조 변화를 통한 임팩트 창출 활동



1) 정부 난민법 개정안 저지 활동 : 2018년 예멘 난민 피난 이후 지속되었던 난민 추방 간 이화 취지 정부 개정안 저지활동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의견서 성안 작업 3년간 관여
-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참여(2024. 11. 19.)
- 논문기고 : 최계영, 이일, 정지혜, 「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사법 통권 제71호, 사법발전재단, 2025
- 차지호 의원실 주최 토론회 주관 : 차지호 의원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 “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2025. 6. 16.)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제네바 현지 대응 참여(2025. 4. 30.)

## 2) 난민인정절차 관련 개정안 관련 입법 활동(1)

- 요약 : 절차 관련 pro-rights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
- 2025 난민인정절차에서의 국선번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브라이언임팩트 법제도 개선사업)(공동연구)
- 202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공동연구)

## 3) 난민의 권리 기반 개정안 관련 입법 활동(2)

- 요약 : 권리 관련 pro-rights 입법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
- 2025 난민법 처우 WG 연구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개선에 관한 입법안 도출 연구 과정 및 옹호활동 참여

## 4) 2025년 경기도 난민지원조례 제정 위한 이주민 인권보장 규범 추진단 위촉 및 참여

- 2025 경기도의 조례 및 이주민 현장에 관한 규범 추진단으로 위촉되어 조례 제정을 목표로 격주 회의 참여 및 조례 성안 및 국내 최초 조례 통과

## 5) 이주구금 관련 활동

- 요약 : 이주구금 위헌성 및 부당성 문제 제기 및 제도 개선(장기구금 문제, 아동구금 문제 해소) 위한 활동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법제도 개선 연대활동
- 아동구금절대금지 원칙 토론회(대한변호사협회) 참여(2023. 9. 23.)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선입법 토론회 참여(2025. 1. 9.)
- 연구 : 외국인보호위원회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해외 주요국 이주구금의 해제와 연장 요건 조사 (공동연구)(2025. 7.)
- 아동구금 금지 관련 법안 발의 조력(한창민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2025. 11.)

## 6) 기타 활동

- 난민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작업/설명회(2024. 2.)
- 인천공항 난민지원 공익활동 사례발표회(2024. 6.)
- 차규근 의원실, “난민심판원 도입에 관한 토론회”, 국회토론회 토론자 참여(2025. 2. 21.)
- 세계난민의 날 난민인권넷 주최 난민 당사자 기자회견 준비 및 참여(2025. 6. 20.)
- 대선 이후 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난민법 관련 의제 인풋을 위한 국회 의원실 관련

자 미팅 및 자료 지속 제출 협의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및 난민인권넷 출입국항 WG 참여를 통한 출입국관리법(이주 구금) 및 난민법(출입국항 제도) 법률 개정안 대응 등.

#### 7) 평가

-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지적하고, 국회의 동력을 모아 이를 저지하는 연대활동의 장을 성공적으로 7년째 펼쳐옴
- 난민법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개정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이민청 또는 이민처와 같은 제도 수립에만 한정되지 않은 구체적 문제를 찾고 분석하기 위해, 중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입법안 마련 활동
- 2025년 대선 이후 국정기획 위원회 등 현재 새로운 정부 수립 국면에서의 100대 국정과제에 의미 있는 활동이 반영되도록 다각도로의 긍정적 로비 활동을 진행.

### 3. 사무실 이전 - 안전한 상담과 장기적인 안정적 활동을 가능케 한 사무실 이전

#### 사무실 이전의 재무·운영 임팩트

세부 사업 수행 성과 (3) - 안전한 상담과 장기적인 안정적 활동 기반

공익법센터 어필  
APIL Impact Report

#### 고정비용 절감 효과

연간 임대료 절감액

**4천만 원**

↓ 월 350만 원 임대료 해소

향후 10년 누적 절감 예상

**4억 원**

절감된 재원은 핵심 사업과 인력 운영에 전략적으로 재투자 (변호사 채용 등)

#### 재투자 임팩트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전문 인력 확충

**3명**

변호사 2명 + 운영팀장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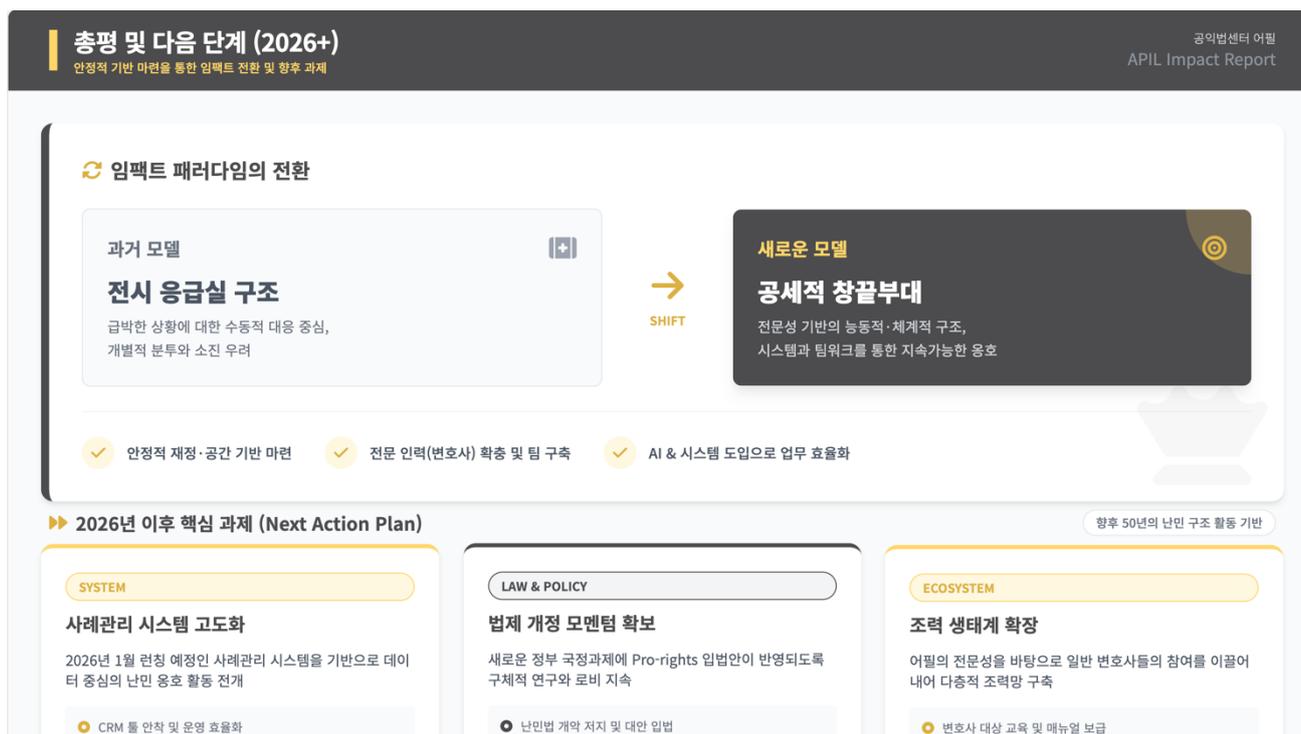
#### 1) 사업내용

- 2024년 12월 31일 가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24일에 매매 계약을 최종 완료하였으며, 이후 약 3주간의 인테리어를 거쳐 2025년 4월 8일에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전. 이 일련의 과정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공간 활용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됨

## 2) 평가

- 브라이언 임팩트 지원금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서, 매월 약 350만 원에 달하던 임대료 지출이 해소되어 연간 약 4천만 원, 10년간 누적 약 4억 원의 고정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로써 확보된 재정 여력은 핵심 사업과 인력 운영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임팩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음.

## ■ 담당자 총평



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 그라운드사업은 이제 15년차에 이른 공익법센터 어필의 난민과 취약한 외국인들에 대한 법을 기반으로 한 옹호활동의 향후 5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중규모 단체들이 그렇듯 분명한 성과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한 발전 및 상호돌봄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지원해준 임팩트 그라운드사업은 현행사업의 수행에만 급급했던 어필의 활동역량을 혁신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안정적 활동기반의 마련은 단지 인건비로 투입될 수 있는 사업비를 늘려 선순환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활동의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원 속에 '사무실'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 2인' 및 '운영팀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 AI integration, CRM의 구축 등 업무 효율화는 물론, 개별적으로 분투하던 변호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Legal service team의 구축을 통해 구조 속에서 녹여내 보다 단단

하게 난민법률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기반은, 어필이 서있는 한국의 이주, 난민 분야에서의 여러 단체들에게 선순환으로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전시 응급실 구조'와 같은 난민구조를 '공세적이고 날카로운 창끝부대'형태의 활동으로 어필의 역량을 전환시키고, 더 많은 난민조력의 소요들은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접근의 폭을 넓혀 보다 다층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은 단언컨대, 실제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곁에 서는 법률지원'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향후 50년의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구조 활동에 크고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